



주민들이 만든 '아름다운 마을' 26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주공아파트에서 이재길 '시화(詩畵)문화 마을' 추진위원이 주민주도형으로 진행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시화문화마을은 지난해 건교부가 주관한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위경희기자 jrwi@kwangju.co.kr

### 확 달라진 광주 시민운동

## '이념' 벗고 '생활' 입다

#### '살기좋은 마을' '뒷산 가꾸기' 등 시민 참여 유도

광주지역 시민운동이 생활 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와 기업을 감시해왔던 기존 활동방식 외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작지만 중요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고 있다. 변화의 중심에는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네트워크'(광주네트워크), 상임대표 김강렬·이용현)가 있다. 광주네트워크는 광주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개혁연대, 북구자원봉사센터, 여성민우회, 빛고을 미래사회연구원 등 광주지역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 광주네트워크가 출범한 것은 지난 2006년 11월 초. 기존의 시민운동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게 이유다. 또 지자체 감시나 재벌개혁 같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

는 고통과는 괴리된 감이 있다는 지적도 변신을 꾀한 이유였다. 광주네트워크는 2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첫 정기총회를 갖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현안 지니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주네트워크가 창립 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왔던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사업도 계속된다. 광주네트워크는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주민자치의식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을 전개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살기좋은 광주만들기 사업을 해왔다. 올해는 이 사업의 연속성과 제도적 보장을 위해 '광주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주민 참여를 위해 학습공동체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동네리더를 발굴하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례집도 펴낼 예정이다. "사회운동의 영향력이 전체적으로 약화한 상황에서 그나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이익과 접합하는 지점에 대한 운동"이라며 "시민사회운동이 민생 분야로 활동 범위를 넓혀 가는 것도 이 같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로 출범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355명 적발

#### 전남대병원 과장급·교수 등 3명 입건

전남대병원 의사 3명을 포함, 355명에 이르는 전국 국공립병원 의사가 의약품 납품받아주는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금품과 향품을 제공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엑스레이 등 촬영에 쓰이는 조영제(造影劑)를 납품받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모 국립병원 이보 원장 등의

사 44명과 엑스레이 기사 2명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 과장급 김모, 전도 교수 등 3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보다 금품수수 규모가 적은 의사 311명은 소속 병원 및 보건당국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박모씨

등 4개 다국적 제약업체 관계자 6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적발된 의사가 소속된 병원은 전남대병원을 포함해 100여 곳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교수는 특정업체의 조영제를 신약의 효능 및 안전성 검증 절차인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사용 후 성적조사) 명목으로 납품받아주고 500만~6천만원 받는 등 200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2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제약사로부터 골프 접대와 항공권을 제공받고 회식비를 대납하도록 하는 등 수천 회에 걸쳐 20여억원 가량의 향품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와 의사들 간의 리베이트 거래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약시장 규모와 리베이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리베이트 거래로 인한 의료소비자 피해는 연간 2조 1천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연합뉴스

#### 택시기사 끈 보험사기단 32명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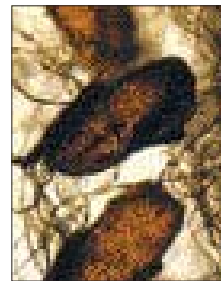
전·현직 택시기사들이 대거 가담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낸 택시운전자 김모(31)씨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부터 작년 3월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7개 보험회사로부터 16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대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돌사고 등을 일으킨 후 다친 사실이 없거나 매우 경미한 사고인데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고로 접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32명 중 김씨 등 7명이 전·현직 택시운전자들로 친구들이나 가족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영업용 택시나 렌터카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은 점 등을 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모형항공기 대회 폐지 논란

#### "창의력 미비" vs "왜 광주만 없애나"

광주시교육청이 창의력 미비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형항공기 대회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모형항공기 대회가 ▲지난해 대회 평가에서 창의적·기술적 탐구력이 미비한 종목으로 선정됐고 ▲기계적 모형항공기 조립으로 경제적 낭비가 심할 뿐 아니라 과학에 대한 의욕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적절한 결단이라는 찬성론과 '왜 광주만 폐지하는가'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네티즌 '정석'은 "모형항공기대회가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적었다. '박상철'은 "모형항공기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폐지에 찬성했다. 그러나 네티즌 '임숙자'는 "전국 16개 시도 중 광주에서만 폐지한다니 이해가 안된다"라고, '양덕은'은 "대회를 손꼽아 기다렸던 조카가 실망할 것을 생각하니 걱정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항공과학 종목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교내 자체 대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회 등에 개인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과 광주 동·서부교육청은 매년 4월 교내대회, 6월 지역교육청 대회, 7월 시교육청 대회를 열고 ▲항공과학 ▲과학기 ▲로봇과학 ▲전자과학 ▲기계과학 ▲로켓과학 ▲탐구토론 등 7개 부문 전국 대회 출진자를 수상하고 전국대회 참가 자격을 부여해 왔다. /정성필기자 camus@

#### 400년전 미라서 '몸니' 첫 검출



임진왜란 직후에 묻힌 400년 전 무덤 조신사미라에서 체외 기생충 일종인 이(蝨)가 처음으로 검출됐다.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김용민)는 지난 2006년 5월23일 충남 금산시 수당리 소재 제주고씨(濟州 高氏) 선산의 분묘 1기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수습한 수의(壽衣) 중 누비숨에 붙어 붙어 사는 이인 '몸니'(body louse)의 충란(蟲卵·사진) 19개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충란들은 길이 0.7~0.9mm에 두께 약 0.3~0.4mm였으며, 부화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는 부화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연구소는 또 머리카락에서 DNA 검출에 성공, 이를 통해 무덤 주인공이 여성임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나원침 (7443) 김장동



다중의 건강·안전지킴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력 및 상담만행

출진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광주북부경찰은 26일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금융 관련 서류를 훔친 뒤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이체해 돈을 가로챈 조모(27·북구 용봉동)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새벽 5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K산업 사무실에 침입해 경리직원 양모(여·43)씨의 컴퓨터를 분해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재조립한 뒤 K산업 사장 명의로 인터넷 뱅킹을 해 현금 310만원을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했다는 것. ○...지난달 26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조씨는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와 신청서, 비밀번호 등이 기록된 서류도 함께 절취. ○...조씨는 경찰에서 "범행 수법은 교도소 동기에게 배웠고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 /이종형 기자 glee@

#### 여수 오동도앞 기름 유출

26일 새벽 5시25분께 여수시 오동도 북방 1.9마일 해상에서 제주 선적 2천23급 화물선 G호(선장 양모·52)가 급유선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던 중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 여수해경은 화물선 인근에 벙커-B 유로 보이는 길이 500m, 너비 20m

가량의 기름띠가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비정과 방제정 등 10여 척과 흡착포·소화포 등을 동원해 500t 가량의 기름을 수거했다. 해경은 급유 도중 기름이 바다로 유출했다는 화물선 선장 양씨의 진술에 따라 과실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www.joitec.com (주) 조이트레블

Advertisement for Joitec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featuring a large '399,000' price tag and listing several properties.

Advertisement for a real estate agency, listing properties for sale with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